
일반논문

일제시기 입전(立塵)상인 백씨 집안의 경제활동*

— 대창무역주식회사의 설립과 경영과정을 중심으로

배 석 만**

[국문초록]

이 글은 1920년대까지 백씨 집안 주력회사였던 대창무역주식회사(大昌貿易株式會社)의 설립과 경영에 주목하여 이 집안이 전통상인에서 근대 상인으로, 그리고 산업자본으로 변신해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백씨 집안이 전통상인에서 몰락하지 않고 근대 상인자본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한 것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매개로 한 한상룡(韓相龍)과 한성은행(漢城銀行)이라는 배경이 작용했다. 1916년 설립한 대창무역은 그 결과물이었고, 제1차 세계대전 전시호황 최대의 수혜자가 되었다. 그러나 1920년 시작된 전후 불황은 대창무역의 이후 장기 경영난의 시작이었다. 1920년 한 해에만 12만 엔이 넘는 거액의 영업손실을 내었고, 1920년대 말에는 결국 파산하였다. 1930년을 전후하여 백씨 집안은 대창무역의 부흥을 기획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여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L0013).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주제어: 입전상인, 백씨 집안, 대창무역주식회사, 한성은행, 한상룡
Silk Merchant, Baek Family, Daechang Trading Corporation, Hanseong Bank,
Han Sang-ryong

기에는 대창무역의 주거래은행이자 장기채권자이기도 한 한성은행의 의도가 작용하였다. 한성은행은 대창무역의 부흥에 회의적이었으며, 그 보다는 자회사 대창직물의 제품판매소 역할에 충실하기를 희망했다. 한성은행의 자금지원을 통해 1932년 설립되는 대창사는 한성은행의 의도가 철저하게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대창무역 시대의 종식으로 백씨 집안은 대창직물과 태창직물(泰昌織物) 경영을 주력으로 한 산업자본가로 전환하였다. 이 과정은 백씨 집안의 자발적 선택만은 아니었다. 자금지원을 무기로 한 한성은행의 강력한 영향력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1. 머리말

“종로의 전통적인 시전 출신인 白潤洙는 한말의 전환기에 일찍이 체제개혁을 단행했고, 뒤에 직물생산업까지를 착수함으로써 근대적 기업가로서의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 시전인들이 대개 근대적 개편을 단행하지 못하고 몰락해 버리는 예에 비추어 보면 특이한 존재로서 한국 근대기업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겠다.”¹⁾

위의 인용문은 한국 근대 기업가 연구의 개척자 중 한 사람인 조기준의 평가로, 백씨 집안이 한국 초기자본주의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가지는 위상을 보여준다. 백씨 집안은 이미 19세기부터 누대에 걸쳐 비단을 취급하는 육의전(六矣廛) 입전 - 선전(緡廛)이라고도 함 - 상인으로, 백윤수(白潤洙) - 원래 이름은 백대영(白大永)이었다²⁾ - 가 가업을 이어받은 한말에도 전통적 시전상인으로서 정상의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19세기 말 20세기 초, 격동의 자본주의화와 식민지경제 구축 과정에서 수많은

1) 조기준(1973), 『한국기업가사』, 박영사, p. 190.

2) 『조선중앙일보』 1933.8.12.

전통상인들이 몰락하였으나, 백씨 집안은 근대 기업가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 자본가를 대표하였다.

한말부터 백씨 집안 누대의 가업을 이어받아 경영한 백윤수는 1910년대 기존 상점을 주식회사체제로 개편하여 근대의 파고에 적극 대응하였음은 물론,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경기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장남인 백낙원(白樂元)이 가업을 계승한 1920년대에는 직물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에 진출하였고, 당시 새롭게 각광을 받은 인견직물 시장을 선점하여 산업자본가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었다. 1930년대 말에는 백낙원의 막내 동생인 백낙승(白樂承)이 가업을 계승하였는데, 그는 일제의 전시경제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편승하여 제철업, 조선업 등 중공업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였다. 해방 후에는 이승만정권에 밀착하여 대형 면방직 귀속기업체를 불하받은 것 등을 토대로 보다 성장하여, 한국 최초의 재벌이라고 일컬어진 ‘태창(太昌)재벌’로 불리었다.

한말부터 1950년대에 걸쳐 백윤수 → 백낙원 → 백낙승으로 이어지며 진행된 백씨 집안의 기업 활동은 한말부터 일제시기, 해방 후에 이르는 굴곡 많은 한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봉건적 전통상인의 한계를 탈피하고 근대자본가 집안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 반열에까지 오른 거의 유일한 사례이다. 조금 과장하면 이들 백씨 집안의 기업 활동과 자본축적 과정은 20세기 한국자본주의가 형성되어 성장·확대해 가는 과정과 일정하게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이렇듯 백씨 집안이 한국 자본주의사에서 가지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³⁾ 1970년대 조

3) 필적하는 대상으로 현재 두산그룹의 기원인 차承稷을 들 수 있지만, 그의 집안은 누대에 걸친 상인집안도 아니고, 박승직이 상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도 19세기말부터이다. 일제시기까지 종로에서 백씨 집안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金潤冕 역시 집안은 대대로 京吏라는 중인계급이었고, 상인이 된 것은 형인 金潤晩이 1897년 개점한 白木塵을 계승하면서부터였다. 박승직과 관련해서는 김동운(2001), 『박승직상점, 1882-1951년』, 해안 참조. 김윤면에 대해서는 조기준(1973) 참조.

기준이 간략하게 소개한 내용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⁴⁾ 각종 대중서나 신문, 잡지의 기사를 통해 백씨 집안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조기준이 소개한 내용의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한국 근대자본가 연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진척되지 못한 것은 자료 부족 때문이었다. 필자는 최근 우연한 기회를 얻어 한국금융사박물관에서 한성은행 대출관련 자료를 볼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주요 대출자 중 하나였던 백씨 집안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⁵⁾ 본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여기에 힘입은 것으로, 이 글은 그중 백씨 집안이 근대자본가로 전환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대창무역의 설립과 경영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은 전사(前史)로써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대창무역 설립 이전, 종로 육의전 전통상인으로서의 경제활동을 다룬다. 특히 근대상인으로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한편으로 화폐정리사업으로 대표되는 일제의 식민지경제 구축과정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려고 하였다. 3장부터는 본론으로 1916년 대창무역 설립과 초창기 경영과정을 분석하였다. 무역회사를 설립하게 된 배경, 설립 후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경기에 힘입은 호황기의 경영실태에 주목하였다. 4장은 1920년대 경영과정을 분석하였다. 1920년대초 전후(戰後) 불황에 따른 거액의 손실발생과 이후 장기 불황 속에 경영난을 회복하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5장

4) 최근 백석만과 정안기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일제말 백낙승이 일제 군수산업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뛰어난 제철(소형용광로제철사업),造船(전시계획조선사업) 관련 기업 활동에 한정된 연구이다[백석만(2008), 「일제 말 조선인자본가의 경제활동 분석 -白樂承과 李鍾會의 군수회사 경영을 중심으로-」, 『경제사학』45, 경제사학회; 정안기(2014), 「일제의 군수동원과 조선인 자본가의 전시협력 -백낙승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6, 동북아역사재단].

5) 자료 열람에는 동 박물관 학예연구사 서효승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은 1930년대 초 백씨 집안의 대창무역 부흥계획을 살펴보았다. 파산한 대창무역을 개조하여 (주)대창사(大昌社)를 설립하고, 이 과정에서 한성은행이 동 회사 경영에 개입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한성은행이 백씨 집안의 주거래 은행이자, 장기간에 걸친 필요자금 조달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주목하였다.

2. 전통상인에서 근대상인으로의 전환 모색

백씨 집안이 19세기 초부터 누대에 걸친 종로 육의전 입전상인이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1차 사료를 확인할 수는 없다. 조기준 역시 제시한 근거는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과 또 다른 종로 유력상인인 백목전(白木麿) 김윤면(金潤冕)의 장남 김명근(金命根)에게서 전해 들었다는 것 정도이다.⁶⁾ 그러나 당시 신문지상에서도 백씨가문을 누대에 걸쳐 비단을 파는 시전상인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동시대 경성 상계에서 그렇게 인식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⁷⁾

한편 백윤수가 가업을 이어받아 전개한 한말 상업 활동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은 별로 없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1880년대이며, 개항 후 인천에 몰려든 청상(淸商)들과 직접 무역을 한 것을 계기로 중국산 비단을 독점수입 판매하면서 급격하게 성장하여 대상인의 반열에 올랐다는 정도이다.⁸⁾

그런데 전통상인들이 결정적 타격을 입고, 많은 상인들이 몰락하는 계

6) 조기준(1973), p. 186.

7) “이 상점의 出來는 현 백사장의 累代祖先부터 續塵 출신인데다가 집터 역시 예전 선전터로 老鋪 중에 노포라 한다.” 『조선중앙일보』 1933.8.12.

8) 관련해서는 조기준(1973) 및 고승제(1975), 『한국경영사연구』, 한국능률협회, 고승제(1991), 『끝없는 도전』, 한국경제신문사 참조.

기가 되었던 1905년 일제의 화폐정리사업 시행과정에서 백운수는 살아 남았다. 조기준은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한말 상업에 종사한 노상(老商)들의 증언을 근거로, ‘백운수상점’의 주거래 물품이 중국산 비단이었기 때문에 주로 중국상인들을 상대하였는데, 이들이 일본 상인에 비해 의리와 신용이 두터워서 상대적으로 화폐정리사업에 기인한 공황의 타격을 덜 받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역시 취급하는 비단의 수요자가 고관대작의 부유한 상류층이었고, 이로 인해 다른 상점보다 상품판매나 대금 회수에 유리한 입장이었다는 것이다.⁹⁾ 후자는 별도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준의 추론으로 볼 수 있다. 임호연(林豪淵)은 화폐정리사업에 의해 백동화어음의 거래중지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의를 중히 여긴 중국상인들이 통상적인 처리를 해주었다는 것과, 누대에 걸친 비단상인으로 왕실과 부유한 상류층이 주거래 처였음으로 대금회수가 용이했다는 조기준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같은 처지의 청포전(靑布塵)상인들 태반이 몰락했음에도 백운수만이 유독 건재했던 것은 별도의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백씨 집안이 1924년 설립한 대창직물의 지배인이었던 인물의 증언을 토대로 돌아온 어음의 결제에 응하지 않는 일명 ‘탕치기’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입전 특유의 황실 및 고관대작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축적된 배경에 있었다고 보았다.¹⁰⁾ 고승제(高承濟)는 관련하여 일제의 지원을 제시했다. 근거는 한상룡(韓相龍)의 회고록에서 1906년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당시 일본 제일은행 경성지점장이었던 이치하라 모리히로(市原盛宏)와 한상룡에게 직접 종로상인층의 거물급인 백운수와 박승직의 이름을 들면서 잘 돕도록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¹¹⁾

9) 조기준(1973), p. 188.

10) 『매일경제신문』 1982.8.7.

11) 『매일경제신문』 1986.3.26.

입전상인 시절의 경제활동과 화폐정리사업에서 백운수가 생존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실증이 필요한 지점이나,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난관이 있다. 다만 조기준의 주장은 임호연이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입전상인 전체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유독 백운수만이 견제한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임호연이 제기한 ‘탕치기’도 조기준에 대한 자신의 문제제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다른 입전상인들은 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화폐정리사업에 의해 많은 입전상인들이 희생양이 된 것은 조기준이나 임호연이 제시한 이유들이 결정적인 생존수단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탕치기의 경우 상식적으로도 어음 결제가 주요 수단인 종로 상거래에서 그간에 쌓아온 신용의 전부를 걸고 하는 행동이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토 히로부미가 주목할 정도의 종로 대표 상인의 지위에 있었던 백운수의 입장에서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결국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고승제가 언급한 이토라는 일본 제국주의 핵심권력이다. 한상룡은 자신의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대창무역회사라는 것은 종로의 포목상 백운수씨의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그는 우수한 실업가이자 상당한 재산가였습니다. 일찍이 이토 통감이 이치하라 조선은행 총재와 나에게 ‘될 수 있으면 조선의 대표적인 상인들을 지원해 주도록 하계’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포목상 백운수와 박승직 두 사람이 상당히 유력하고 유망하다고 하니, 이들을 도와주게’라고 內命을 내렸습니다.”¹²⁾

화폐정리사업으로 조선 상업계가 혼란의 도가니에 놓여 있던 1906년

12) 한익교 정리, 김명수 옮김(2007), 『한상룡을 말한다』, 혜안, p. 146. 한상룡과 관련해서는 金明洙(2010), 『近代日本の朝鮮支配と朝鮮人企業家・朝鮮財界: 韓相龍の企業活動と朝鮮実業倶楽部を中心に』, 慶応義塾大学 大学院 博士學位論文 참조.

4월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이토가 어떻게 백운수를 알게 되었으며, 어떤 배경으로 당시 조선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조선측과 일본측의 대표 인물들을 직접 불러 명령을 내릴 정도로 그에게 관심을 가졌을까. 이 역시 자세한 사항의 확인은 과제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1906년부터 1909년 사이의 시점에서 통감 이토는 조선인 자본가 중 그들의 정책을 추종하고 말단에 편입되어 일제가 구상한 조선 경제체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의 한 사람으로 백운수를 생각했다는 것이다. 한상룡은 이토의 ‘내명’이 있는 후에 백운수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설립하려고 했던 대창무역과 관련하여 회사령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을 해결해 주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¹³⁾ 이토가 조선에 체류한 1900년대 후반과 대창무역이 설립된 1910년대 중반에는 상당한 시간적 거리가 있지만, 마치 백운수의 후견인이 된 것처럼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는 한상룡의 ‘특별한’ 모습은 그 스스로 얘기하듯이 이토에게서 시작된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상룡은 대창무역 설립에서의 조력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영한 한성은행으로부터도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고, 이것은 1920년대 후반 한성은행 정리에서 ‘하나의 흠이 되었다’고 회고할 정도로 매우 큰 금액이었다.¹⁴⁾ 이 외에도 백운수와 한상룡의 밀접한 관계는 여러 곳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백운수는 1909년 갑자기 한성은행의 대주주가 되었고¹⁵⁾, 역시 1920년 한상룡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13) “대창무역회사는 그 후 아오키(青木) 과장(조선총독부 관료-필자 주)의 내락을 얻어 착작 계획이 진행되었고, 같은 달 11일 인가서를 제출하고 머지않아 인가를 받았습니다.” 한익교 정리, 김명수 옮김(2007), p. 146.

14) 한익교 정리, 김명수 옮김(2007), p. 146; 한성은행의 백씨 집안에 대한 대출상황은 후술한다.

15) 백운수가 한성은행 주주로 참여한 것은 1908년부터이지만, 최초 소유한 주식은 10주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듬해인 1909년 돌연 263주를 소유하여 일거에 대주주의 반열에 올랐다. 韓昌洙(640주), 李恒九(600주), 李載完(400주), 有終會(400주)에 이은 5위의 지분이었다. 이후 1911년 526주, 1920년 789주로 계속 보유지분을 늘렸고, 1925년에는 백운수 사망으로 가업을 이은 장남 백낙원 명의로 789주가 유지되

조선실업구락부(朝鮮實業俱樂部) 19명 회원 중 1인이었다.¹⁶⁾ 그 외에도 한상룡이 직접 백씨 집안의 보증인 역할을 한 것이 확인되고¹⁷⁾, 한성은 행 창고가 대창무역 물품보관에 이용되기도 하였다.¹⁸⁾

한편 한일은행에 대해서도 백운수는 중역이자 주요 대출자 중 한 명이었고, 1915년에는 잠시이기는 했지만 은행장(頭取)에까지 오르게 된다.¹⁹⁾ 육의전 거상이기는 했지만 화폐정리사업의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를 고민하던 종로 비단상인이 불과 10년 만에, 엄중한 회사령 속에서도 자본금 50만 엔의 거대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한편으로 한성, 한일 양 은행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성은행 대주주, 한일은행 은행장에까지 올라섰다는 것은 이토에서 시작되는 일본제국주의 핵심 권력의 배경을 지우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었다. 그러나 한상룡이 은행장에서 물러난 1928년에는 394주로 지분이 절반 정도로 대폭 줄었고, 1933년 하반기부터는 주주명부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모든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한성은행(1908-1933), 『제6기-제57기 영업(업무)보고서』].

- 16) 조선실업구락부 초대회원의 구성은 회장에 조선상업은행장 趙鎭泰, 부회장 한성은행이사 白完嫻, 이사장 한상룡을 필두로 이사 4인, 감사 2인, 특별회원 10인으로 구성되었는데, 백운수는 특별회원 중 한 명이었다[金明洙(2010), p. 151].
- 17) 대창직물을 설립하고 필요한 원료를 京畿道製絲場에서 구입할 계획 하에서 원료 대금의 후납을 경기도에 희망하였는데, 경기도에서도 직물업 장려의 차원에서 확실한 보증인만 있으면 허가할 방침이었고, 이때 백씨 집안이 보증인으로 내세운 것이 한상룡이었다. 한상룡을 보증인으로 경기도에 신청한 경기도제사장의 원료 구입과 대금 후납은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동아일보』 1924.9.16.).
- 18) 1920년 중국에서 수입한 마포(生唐布) 50隻의 거래에 문제가 발생하자 경매처분하기로 하고 물품을 남대문 밖의 한성은행 창고에 보관하였다(『매일신보』 1920.6.17.).
- 19) 관련해서는 정병욱(1999), 「1910년대 韓一銀行과 서울의 商人」, 『서울학연구』 12,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학연구소 및 박현(2004), 「한말·일제하 한일은행의 설립과 경영」, 『동방학지』 12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참조.

3. 대창무역주식회사의 설립과 초창기 호황

1916년 누대의 육의전 비단점포를 대창무역이라는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사장에 취임함으로써, 전통상인 백운수는 ‘공식적으로’ 근대 기업가로 변신하였다. 회사령이 엄존하던 시절, 회사설립인가에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상룡의 도움을 받았고, 창립 발기인에는 백운수와 그의 아들들 외에 조진태(趙鎭泰), 홍충현(洪忠鉉), 김용집(金用集), 배동혁(裴東赫), 차석희(車錫喜)가 이름을 걸었다.²⁰⁾ 흥미로운 점은 백씨 집안 인물들 외에 발기인에 참여한 인물들이 대부분 한상룡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는 것이다. 조진태는 한성은행 이사, 조선실업구락부 초대 회장, 홍충현 역시 조선실업구락부 특별회원이자 1921년 한상룡 주도로 설립된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 감사, 김용집 역시 조선실업구락부 특별회원이고, 한성은행 감사였다.²¹⁾ 김용집은 백운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백운수가 1915년 한일은행 은행장을 맡았던 기간 동안 이사에 새로 임명되었고, 백운수가 은행장을 그만두면서 이사에서 해임되었기 때문이다.²²⁾

회사 창립총회는 1916년 4월 17일 백운수의 집에서 개최하였고, 사장에 백운수, 이사에 4명의 아들들인 백낙원, 백낙중(白樂仲), 백낙삼(白樂三), 백낙승, 그리고 감사에 조진태를 선임하였다.²³⁾ 전액 불입된 자본금

20) 『매일신보』 1916.4.23.

21) 관련 정보는 金明洙(2010) 및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를 참조함.

22) 株式會社 韓一銀行(1915-1918), 『取締役會決議錄』 6, 한국금융사박물관; 배동혁은 조진태와 같이 한성공동창고주식회사 발기인이었고, 조선상업은행에 합병된 후 조진태 은행장 체제하에서 이사로 참여했다[전우용(2011), 『한국회사의 탄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 22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차석희는 경성재계의 원로 18인이 결성한 ‘老人稷’의 일원으로 太極學校 부교장을 지내는 등 한말 계몽운동에도 참여한 인물이었다(『황성신문』 1908.8.4.; 『매일신보』 1917.11.21.).

23) 『매일신보』 1916.4.23.

50만 엔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대부분을 백운수 개인이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한상룡이 백운수가 전 재산을 털어서 무역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회고한 것이나, 창립총회가 공공장소가 아닌 백운수 집에서 열린 것, 그리고 경영진이 감사역인 조진태를 제외하면 백운수와 그의 아들들로 구성된 폐쇄적 가족경영체의 모습이었다는 사실 등이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²⁴⁾ 대창무역이 사실상 육의전 비단상점이라는 백씨 집안 누대의 사업이 주식회사체제로의 변신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설립과정과 경영진 구성 등을 보면 대창무역은 ‘무늬만 주식회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의 토박이 전통상인이 자력으로 설립한 근대적 무역회사로서는 효시를 이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대창무역 이전에 조선인이 설립한 무역회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14년 조선무역주식회사와 (주)공익사(共益社)가 나란히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무역은 귀족, 고관 출신들이 주도한 회사이고, 1907년까지 설립 연원이 올라가는 공익사는 비록 박승직이 사장이기는 했으나 이토추(伊藤忠)합명회사가 자본을 대고, 일본 상인이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했던 회사였다.²⁵⁾ 대창무역과 마찬가지로 기존 조선인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무역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회사령이 유명무실해지는 한편으로 제1차 세계대전 전쟁경기가 절정에 이른 191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진다. 서울지역의 경우 1919년 종로 포목상 김윤면을 중심으로 종로상인들이 조선상업은행을 배경으로 설립한 동양물산주식회사(東洋物産株式會社)가 대표적이며,²⁶⁾ 공동무역주식회사(共同貿易株式會社), 대동무역주식회사(大同貿易株式會社) 등도 모두 같은

24) 『朝鮮銀行會社要錄』에도 중역 5인이 주식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中村資良編(1921), 『朝鮮銀行會社要錄』, 東亞經濟時報社 p. 167).

25) 조선무역과 관련해서는 『매일신보』 1913.4.27; 1914.2.22; 9.28. 등 기사 참조. 공익사는 김동운(2001) 참조.

26) 『매일신보』 1926.10.5.

해에 설립되었다.²⁷⁾

한상룡의 말대로라면 백운수가 전 재산을 쏟아 부은 것이라 할 수 있는 대창무역은 주력 사업으로 내외 직물, 기타 생산품의 수출입을 대외에 표방하였다.²⁸⁾ 즉 기존 가업이었던 수입 및 국산 견직물의 도소매점을 확장하여 대외 수출입무역을 하겠다는 것으로, 주로는 인천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상인(화교상인)에 조달을 의존했던 중국산 비단과 마포(麻布)의 수입을 중국에서 직수입하겠다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 호황도 백운수의 무역회사 설립 및 사업확장 시도에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설립 후 초창기 대창무역은 사업 활동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었다. 구체적인 영업활동을 확인할 수 없지만, 창립 후 1919년의 4기 영업기까지 평균 30% 이상이라는 고율의 주주배당이 이루어졌고, 이와 별도로 14만 엔에 달하는 거액의 이익잉여금을 적립금 형태로 내부 유보하였다.²⁹⁾ 아울러 공익사, 조선우선(朝鮮郵船), 후지광업(不二鑛業)과 함께 13만 엔에 달하는 전시이득세(戰時利得稅)를 분담하였다.³⁰⁾ 전시이득세는 영국과의 군사동맹을 구실로 독일에 선전 포고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동아시아에 점재하는 독일의 군사기지를 점령한 일본이 전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1918년 3월 공포한 ‘전시이득세법’에 근거한 것이었다. 전쟁전 2년간의 평균소득과 비교하여 그 120%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 법인은 20%, 개인은 15%를 과세하는 것이었다. 대창무역은 제1차 세계대전 전시경기 최대의 수혜자였다고 할 수 있다. 1918년 12월에는 대창무역 산하에 비록 소규모이기는 했으나 견직물과 마포(麻布)의

27) 中村資良編(1921), 商業之部 참조.

28) 『매일신보』 1916.4.23.

29) 中村資良編(1921), pp. 166-167; 창립년도인 1916년 제1기 영업기에 이미 10%의 배당을 실현했고, 이후의 배당률은 1917년 50%, 1918년 10%, 1919년 60%였다.

30) 『매일신보』 1918.8.7.

생산시설을 갖춘 직물가공부를 설립하여 직포의 생산 영역까지 사업 확장을 시도하였다.³¹⁾

1916년 기존 가업을 근대 주식회사조직으로 재편하여 설립한 대창무역을 통해 백운수는 지금까지 조선의 화교 상인에 의존했던 비단과 마포 수입을 직접하려고 했고, 초창기 우수한 영업 성적에 힘입어 생산영역인 직포에까지 진출을 모색하였다. 조선우선, 후지광업 등 국책적 성격을 가진 거대 회사들과 전시이득세를 분담하고, 연평균 30%의 고배당과 거액의 내부유보자금의 축적을 실현하며 호황기를 구가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1920년대에 들어서 전쟁 경기가 급격히 사라지고 장기 불황의 시기가 도래하면서 전혀 다른 경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4. 1920년대 장기 불황과 경영위기

4.1. 전후 반동공황과 대규모 영업손실

1918년 11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전쟁경기는 이듬해인 1919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1920년부터 본격적인 전후 반동공황이 시작되었고, 전쟁경기의 가장 특출한 수혜자였던 대창무역은 여기에 비례하여 직격탄을 맞았다. 그 결과 1920년 제5기 영업기에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려 12만 6천 엔에 달하는 거액의 영업 손실을 입었고 최초로 무배당이 실현되었다.³²⁾ 전년도인 1919년에 60%라는 창립 이래 가장 높은 이익배당을 실현한 것을 감안하면 너무도 급격한 추락이었고, 더욱

31) 漢城銀行庶務課(1931), 『大昌織物株式會社ニ對スル貸出金限度増額延期取扱ノ件(1931.8.28.)』, 『取締役會議案』, 한국금융사박물관.

32) 中村資良編(1921), pp. 166-167.

이 대중국 직접무역의 본격화와 직포생산을 통한 제조업 진출이라는 사업 확장 중에 일어난 일이라 보다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창사 이래 최초로 경험한 12만 6,335엔의 당기손실금 처분은 전기이월금 1만 518엔과 그간의 호황기 이익금을 내부유보자금으로 적립한 14만 엔 중 12만 엔을 염출하여 해결하고, 그 결과로 남은 잔액 4,183엔은 후기이월금으로 정리하였다.³³⁾ 대창무역 창립 후 전쟁경기에 힘입어 쌓아 놓은 자금이 1920년 한 해 동안의 영업손실로 대부분이 날아가는 순간이었다.

[표 1] 대창무역 제5기 대차대조표(단위: 엔)

자산		부채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상품	544,469	자본금	500,000
소매품	30,944	적립금	140,000
직물공장	129,405	수탁품계정	27,024
미수금	77,933	미지불	5,380
저금	73	지불어음	624,483
수취어음	293,819	假入金	7,967
假出金	15,612	당좌차월금	8,394
토지건물	139,842	上海계정	47,095
什器	3,312	사원 신원보증금	3,329
유가증권	13,206	사원 恩給기금	3,680
현금계정	2,900	전기이월금	10,518
純損金	126,335		
합계	1,377,853	합계	1,377,853

자료: 中村資良編(1921), 『朝鮮銀行會社要錄』, 東亞經濟時報社, pp. 166-167에서 작성

1920년 대창무적이 거액의 적자를 냈던 원인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당시 언론 기사가 주목된다.

33) 『매일신보』 1921.5.27.

“대창무역주식회사는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敦義洞 명월관에 서 제5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今期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보고서 등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데, 今期 영업 성적을 들은즉, 戰後 호황은 前期末을 最盛期로 하고 그 反動期가 된 當期에 入하여 급전직하의 勢로써 주요상품 중에서도 직물류는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여 전혀 底止할 바를 모르는 참담한 상태에 이르렀고, 금융의 경색과 前弱의 人氣는 일반 구매력을 수차 격감케하고, 더욱이 前期이래 왕성하던 선물매매는 俄然沈衰에 빠져들어 當業者에게 입힌 타격은 그 극도에 달하고, 추석 계절부터 다소 수요가 喚起될 줄로 기대하였으나 冬物 수요기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물가가 漸落하여 商勢는 부진한 상태를 보였다. 同社는 본래의 主旨를 守하고 신중 노력한듯하나 세계적 급격한 波瀾 중에 처하여 深甚한 타격을 면키 불능함으로써 다소의 손실은 면치 못한 모양인바이다.”³⁴⁾

동 기사는 경영부진과 관련하여 영업보고서와 같은 직접적인 내부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1920년 대창무역 경영난의 원인을 가장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여기에 의거하면 대창무역의 영업부진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반동공황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주력 판매상품인 직물류의 가격 폭락과 구매력 급감이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직물가격의 갑작스런 폭락은 밑줄 친 인용문에서 보듯이 대창무역이 1919년도에 왕성하게 진행한 선물거래에서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전쟁경기와 이로 인해 치솟는 물가에 편승하여 현물 매점매석 및 투기성 선물거래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려고 했던 것은 이 시기 조선 재계의 유행이라고도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³⁵⁾ 1919년은 그 절정기였고,

34) 『매일신보』 1921.5.27.

35) 주지하듯이 김성수가 근대화의 이념을 품고 설립했다는 경성방직조차도 공방건설 자금을 가지고 조선 및 일본 상회사와 단기 차익을 노린 면제품의 투기적 현물·선물거래를 행하였고, 1920년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 경성방직의 면제품 투기

이들은 1920년 전후 반동공황으로 갑자기 폭락한 물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거대한 영업손실을 내었다. 특히 대창무역과 같이 포목상과 무역업을 병행하는 상회사들의 손실이 두드러졌는데, 경성 시내 주요 회사들 중에서 대창무역의 12만 6천 엔 손실은 동업자이자 경쟁자이기도 했던 김윤면의 동양물산 28만 7천 엔 다음으로 큰 규모였다.³⁶⁾

대창무역의 거액 손실과 관련하여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핵심은 비단과 함께 주거래 물품이었던 중국산 마포의 선물거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성 상계의 많은 조선인 포목상과 무역회사들이 마포 선물거래에 참여했다가 손해를 보았는데³⁷⁾, 특히 대창무역은 그 중심에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경쟁사들과 여러 가지 분쟁에 휩쓸리기도 하였다. 분쟁의 내용은 대창무역을 통해 중국산 마포 선물거래계약을 했던 상회사들이 마포 가격이 폭락하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마포 인수를 미루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분쟁이 대창무역과 당사자 간의 내부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아, 당시 언론에 포착된 것만 하더라도 동일상회(東一商會), 상신상회(相信商會), 동양물산 등이 있었고, 특히 동양물산과의 분쟁은 소송전으로까지 번지면서 1925년에 가서야 일단락되었다. 두 회사의 분쟁

거래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주익중(2008), 『대군의 척후: 일제하의 경성방직과 김성수·김연수』, 푸른역사, pp. 141-150 참조.

- 36) 1921년판 『朝鮮銀行會社要錄』에서 대차대조표가 제시되어 1920년 영업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성지역 주요 상회사들의 1920년도 손익을 보면, 동양물산 28만 7,497엔(손실), 해동물산(海東物産) 12만 4,622엔(손실), 대동무역 6만 1,708엔(손실), 공동무역 4만 7,919엔(손실), 조선무역 4만 5,216엔(손실), 공진상회(共進商會) 1만 557엔(손실) 등이었다[中村資良編(1921), 商業之部 참조].
- 37) “...매년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마포는 속春 재계의 變調를 예상치 못하였을 시에 경성내의 각 포목무역업자가 다수의 선물매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총액이 대략 800만 엔에 달하였다. 그 후 현품이 도착할 시기에 錢荒이 일어나고 마포시세 또한 폭락하여 조선상인은 그 결제자금에 곤궁할 뿐만 아니라, 설혹 자금이 풍족하여 현품의 인도를 받을지라도 계약 당시에 비하여 거의 4할이 폭락하여 손해가 거대하므로 경성 조선인 직물상은 동맹회를 조직하여 그 선후책을 강구 ...” 『동아일보』 1920.6.18.

은 이들이 종로 상권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경쟁자이기도 했다는 측면에서 경성 상계의 화제거리이기도 했지만, 양측 모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함으로써 소송비까지 포함하여 2만 6천 엔이 넘는 거액을 대창무역에 배상하게 된 동양물산은 주거래은행인 조선상업은행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기는 했지만, 폐점이 거론되기도 하였다.³⁸⁾

4.2. 지속되는 경영난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반동공황의 첫 해였던 1920년 큰 타격을 입고 엄청난 영업손실을 내었던 경성지역 무역회사들은 이후에도 경영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불입자본금 50만 엔의 60%에 육박하는 28만 7천 엔의 적자를 낸 동양물산의 경우 이후에도 경영난이 지속되어 결국 손실액이 불입자본금을 초과하는 사태에 직면하였고, 1924년 50만 엔으로 감자를 단행하여 결산을 보전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손실이 100만 엔을 넘어서게 되자 회사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1926년 해산을 결정하게 되었다.³⁹⁾ 대창무역과 비슷한 손실을 내었던 해동물산도 거액의 손실이 세간에 알려진 것과 동시에 정리설이 돌았고⁴⁰⁾, 1920년대 중반 어느 시점에 해산된 것으로 보인다.⁴¹⁾

38) 『매일신보』 1920.6.17; 6.18; 6.20; 7.11; 7.16; 1922.7.19; 1925.4.30; 5.13; 5.14; 5.15; 5.16.

39) 해산 형태가 약간 독특하기는 한데, 지배인 李用霖 이하 사원을 해고하고 1926년 중에 해산을 단행하는 동시에 1927년부터 김윤면 개인이 인수하여 경영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완전히 회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주식회사 조직을 해산하여 김윤면 개인회사로 전환하는 것이었다(『매일신보』 1926.9.29.).

40) “해동물산주식회사(자본금 30만 엔, 2회 불입)는 향간에 전하는 정리설을 非認하는 바 …” 『매일신보』 1921.3.31.

41) 이것은 격년으로 발행되는 『朝鮮銀行會社要錄』 1923년판(조사시점: 8월)까지 기록이 있고, 이후에는 찾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朝鮮銀行會社要錄』 1925년판의 조사시점 역시 8월임으로, 1923년 9월부터 1925년 7월까지의 어느 시점에 해산된 것으로 보인다.

대창무역 역시 경영난이 지속되었다. 1921년에 들어서 폭락하던 포목 가격이 일정하게 진정되면서 손실의 폭은 줄었지만, 위축된 시장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2만 8천 엔의 영업적자를 기록하였다.⁴²⁾ 대외무역의 경우도 중국산 마포에 대하여 중국 상하이(上海)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인천, 서울의 화교상인을 거치지 않고 중국 도매상으로부터의 직수입을 시작하였지만,⁴³⁾ 1921년에는 규모가 절반이하로 위축되었다.⁴⁴⁾ 이후에도 중국으로부터의 직물 직수입은 확대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인천, 서울 화교상인의 반발과 1924년 조선총독부가 중국산 견직물 축출을 위해 행한 수입관세 인상 때문이었다.⁴⁵⁾

직물 생산업자로의 전환 역시 시도는 있었으나 성과는 미미했다. 무역회사 산하에 직물가공부를 설치하고 50~60대의 직기를 보유하였지만 본격적으로 가동되지는 않았다.⁴⁶⁾ 불완전한 가동은 원료인 생사구입이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것과 제품을 완성한다고 하더라도 품질은 떨어지는 반면 생산원가는 비싸서 수입품과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후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1923년 2월에는 전면적인 가동중단에 들어가게 되었다.⁴⁷⁾

로 보인다.

- 42) 中村資良編(1923), 『朝鮮銀行會社要錄』, 東亞經濟時報社 p. 222.
- 43) 대창무역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상하이 출장소를 설치하여 직수입을 시도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매일신보』의 1921년 3월 28일자 기사에 그 시작 시기를 ‘몇해 전(年前)’이라고 한 것을 참조하면 1919년 내지 1920년 정도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직수입 업체로 같이 언급된 동양물산, 대동무역은 1919년에 설립된 무역회사이기 때문이다. 대창무역의 연간 마포 직수입 규모는 500~600俵 정도로 소규모였으나, 직수입을 시도하는 조선인 무역회사 중에는 규모가 가장 컸다(『동아일보』 1921.5.6).
- 44) 이것은 1920년 대창무역 대차대조표 상의 상하이출장소 계정의 금액이 4만 7천 엔에서 1921년 2만 7천 엔으로 줄어든 것에서 확인이 가능하다(中村資良編(1921), p. 167; 中村資良編(1923), p. 222).
- 45) 화교 상인들은 상해 중국도매상과 협약을 체결하여 조선 상인들에게 직접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강구했다(『매일신보』 1921.3.28).
- 46) 『동아일보』 1924.9.16.

설상가상으로 1922년 백운수가 사망하였다.⁴⁸⁾ 장남인 백낙원이 가업을 이었으나 이후에도 대창무역의 경영은 호전되지 않았다. 1910년대 후반 전쟁경기와 치솟는 물가에 편승한 투기성 선물거래를 바탕으로 연평균 30%에 달하는 고율의 주주 배당을 실현했던 대창무역은 1920년대 단 한 차례도 주주 배당을 하지 못했다.⁴⁹⁾

대창무역의 지속된 경영난은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반공공황에서 시작된 불황이 1923년 관동대지진, 그리고 이후 금융공황, 농업공황, 대공황으로 이어지며 1920년대에 걸쳐 장기적으로 지속된 것이 1차적인 원인이다. 여기에 조선총독부의 중국산 견직물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은 중국산 비단의 수입판매라는 백씨 집안이 육의전 입전상인 시절부터 주력 사업이자 전통적 축적 기반을 한순간에 상실하도록 하였다. 1920년대말 대창무역은 이름만 무역회사일 뿐이었고, 다시 종로의 포목상으로 되돌아가 있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그러나 종로 포목상으로서 기존 상권을 지키는 것도 만만치는 않았다. 1920년대말부터 본격화된 일본 백화점자본과의 치열한 경쟁 때문이다. 일제의 정책적 비호를 논외로 하더라도 대자본과 근대적인 경영기술로 무장한 일본 백화점 자본은 전통적 상술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종로상인에게 큰 위협이었다. 당시 대창무역을 비롯한 종로상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들이 일본 백화점자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려고 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움직임은 동업자조직을 통한 연대 강화와 규율 정립, 일본 백화점자본의 근대적 경영기술 모방과 학습 등으로 나타났다.

47) 漢城銀行庶務課(1931) 참조.

48) “경성부 종로 대창무역회사 사장 백운수씨는 그간 신병으로 치료중이더니 지난 9일 오후 3시 瑞麟洞 자택에서 별세하였는데, 향년 66세이다.” 『동아일보』 1922.10.11.

49) 『朝鮮銀行會社要錄』 각년도판 참조.

예를 들어 경성포목상조합은 1930년 11월 긴급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남촌(충무로 일대)의 미쓰코시(三越), 조지아(丁字屋) 등 일본백화점이 다양한 방법으로 조선인 손님을 끌고 있는 것에 대한 대항책 마련 때문이었다. 회의를 통해 결의된 내용은 전통 상술의 폐단을 시정하는 한편으로 근대적 상거래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싸게 팔지도 않으면서 자를 후하게 준다고 손님을 속이는 행위의 개선, 오랜 관습인 ‘덤’을 없애고 미터법(米突)에 의한 정확한 치수로 판매, 시세 대로의 판매 등이었다. 그리고 이 대항책의 강력한 실시를 위한 감독 목적의 실행위원을 선출하였는데, 대창무역을 포함하여 박승직, 김운면 등 8인이었다. 결의를 위반한 조합원은 경고하되 만약 불응하는 경우에는 제명 후 거래정지를 단행할 것임도 천명하였다.⁵⁰⁾ 이외에도 연말할인행사 개최, 구매의욕이 일어날 수 있는 효율적 상품진열, 손님 접대와 관련하여 점원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교육 및 우수점원 시상, 판매 제품의 측량규격의 표준화 및 정가제 시행, 밝은 거리 유지를 위한 종로 상가거리 가로등 설치 추진 등 종로 상계의 다양한 변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모두 일본 백화점자본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근대경영방법의 학습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일본 백화점자본과의 경쟁과정에서 나타나는 종로지역 상인의 변화하는 모습은 전통상인의 근대상인으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주목되는 현상이고,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대표자 중 하나가 대창무역의 백씨 집안이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대창무역을 경영난을 타개할 수 없었다. 대창무역의 경영에는 수차례 위기가 있었고, 결국은 파산하였다.⁵¹⁾ 이로 인해 백씨 집안은 주거래 은행이었던 한성은행에 누적된 대창무역 대출금 변제와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친 협상을 해야 했다.⁵²⁾

50) 『동아일보』 1930.11.12.

51) 漢城銀行庶務課(1932), 『株式會社大昌社ニ對スル貸出金取扱ニ關シ條件追加並差入書徵求ノ件(1932.5.13.)』, 『取締役會議案』, 한국금융사박물관.

5. 1930년대초 (주)대창사 설립과 대창무역 시대의 종식

1932년 백씨 집안은 대창사 설립을 단행한다. 백씨 집안은 대창사가 대창무역의 영업 일부를 이어 받은 것이라고 했지만,⁵³⁾ 실제로는 대창무역의 후신이었다. 한성은행이 1932년 5월 13일 대창사에 대한 자금 대출을 위해 개최한 중역회의(取締役會議) 의안(議案)에 정리된 백씨 집안의 대창사 설립 경과보고의 다음 인용문은 이런 정황을 잘 보여준다.

“이전부터 當行과 밀접한 거래관계에 있던 대창무역회사는 몇 년 전 파탄 후, 몇 번에 걸쳐 그 갱생·부흥을 기획했으나, 재계 불황과 기타 환경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서 근근이 자매회사 대창직물회사가 생산한 직물제품의 위탁판매 및 그에 수반한 보충품(제품이외의 제직물류)의 도매 등 비교적 소규모의 영업을 지속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일전에는 동업자 방면의 중용도 있었고, 한편으로 同社의 경영전환책으로서 백화점 和信商會와의 합동경영, 혹은 단독으로 그런 종류의 대규모 도소매점 개업 등의 신규계획도 수립하였지만, 거액의 신규자금이 필요했고, 그 추진과정에서 복잡한 사정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결국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同社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영업하는 소규모 도매업으로는 도저히 가까운 장래에 豫期の 성과를 거두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華商 몰락 후 同業者간에 각방면에서 격렬한 상권 확장, 판로 쟁탈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安閑이 허락되지 않는 사정도 있어, 이번에 同社 중역 백씨 일파가 새롭게 자본금 50만 엔(1/4 불입)의 주식회사 대창사를 설립하고, 금후 이 신회사로 하여금 종래의 대창직물회사 제품 위탁판매 및 일반 건·면포의 도매를 일정정도 대규모로 확장·경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신회사는 이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목하 영업계획 및 기타 제반 준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영업개시를 하게 되면 상당한 업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⁵⁴⁾

52) 『매일신보』 1935.5.11.

53) 漢城銀行庶務課(1932).

1920년대의 장기 경영난 속에서도 대창무역이 그나마 존립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 대창무역 직물가공부를 분리하여 1924년 9월 별도 자회사로 설립한 대창직물주식회사가 생산한 견직물 제품의 위탁 판매에 힘입은 것이었다. 1920년대 말 파산한 대창무역은 더 이상 인천, 서울의 화교상인들과 연계하여 중국산 비단, 마포 등을 수입, 국내에 공급하고, 나아가서는 화교상인을 배제하고 중국으로부터 이들 직물의 직수입까지 도모하는 무역회사가 아니었다. 1932년 시점의 대창무역은 1920년대 초반까지 보여 주었던 중국산 직물거래 사업 영역에서의 압도적 위상을 상실하고, 산하 직물부에서 독립한 자회사인 대창직물의 제품 판매소로 연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창사의 설립은 사실상의 대창무역의 해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인용문에서 대창무역이 ‘현재 영업하는 소규모 도매업으로는 도저히 가까운 장래에 성과를 거두기 불가능’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 대창사를 설립한다는 것과, 이 신설회사의 주력 사업이 대창무역의 생명유지선이었던 대창직물의 생산제품 위탁판매부문이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아울러 대창사는 일반 견·면포의 도매업도 대창무역으로부터 넘겨받아 확장·경영하기로 하였으므로, 대창무역의 영업 부문은 점포의 진열대에서 판매하는 소매업만이 남게 되었다.

한편 인용문에서 1920년대에 들어 지속된 장기 불황 속에서 경영난에 허덕이다 파산한 대창무역에 대하여 백씨 집안은 여러 차례 그 재기를 위한 시도를 했다고 서술한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대창무역의 ‘회생과 중흥’을 위한 몇 번의 실패한 시도 중에 백화점 경영으로의 전환이 들어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백씨 집안은 화신상회 박흥식(朴興植)과의 동업을 타진했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 경영도 염두에 두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구체적인 기획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당시 종로 상계의 분

54) 漢城銀行庶務課(1932).

위기와도 맞닿아있다. 당시 대창무역을 포함한 종로상인들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 백화점자본의 공세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고, 1930년 전후의 시점에서는 일각에서 ‘연합백화점’을 만들려는 구상까지 하는 상황이었다. 인용문에 보이는 ‘동업자 방면의 중용’이란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흥식과 백씨 집안의 교섭도 이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박흥식이 신태화(申泰和)가 귀금속품 전문점으로 운영하던 화신상회를 인수하여 종로에서 백화점 경영의 첫발을 내딛은 것이 1931년 9월 15일이고, 옆 건물 동아백화점(東亞百貨店)을 인수하여 확장한 것이 1932년 7월 16일이었다.⁵⁵⁾ 이 시점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창사의 설립이 1932년 3월이었음을 볼 때, 동 회사의 설립이 대창무역의 백화점 전환이 좌절된 차선책으로 선택된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창무역을 백화점으로 전환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인용문에서 보듯이 자금조달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대로 대창사의 설립이 가능했던 것은 오랜 주거래 은행인 한성은행의 자금지원에 힘입은 것이었다. 백씨 집안은 대창사 설립과 함께 한성은행에 운영자금 용도의 대출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한성은행은 신용어음대부 15만 엔, 부동산담보 당좌대월 2만 엔, 상업어음할인 5만 엔 등 총 22만 엔 한도의 대출을 허용하였다.⁵⁶⁾ 한상룡이 ‘암적인 것’으로 표현했던 대창무역과의 구채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현재의 재계 불황 상황에서 신회사 영업전망에는 상당한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성은행이 대출을 허용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⁵⁷⁾

55) 1930년을 전후한 종로상인들의 백화점 설립 움직임 및 박흥식의 백화점업계 진출 과정과 관련해서는 오진석(2002), 『일제하 박흥식의 기업가활동과 경영이념』, 『동방학지』 11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pp. 105-110 참조.

56) 漢城銀行庶務課(1932).

57) 漢城銀行庶務課(1932).

첫째, 대창사가 한성은행으로부터 특별자금원조를 받고 있는 대창직물의 ‘제품판매기관’으로, 종래 대창무역이 하던 것을 독립시켜 정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대창사가 대창직물의 중요한 일부로 새롭게 정비된 것임으로, 한성은행이 특별히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 대창직물의 경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둘째, 대창사가 단지 백씨 집안의 재기, 갱생이라는 측면에 있다기보다는 대창무역의 기존 대출금을 장래 점진적으로 반제·정리하려는 계획 하에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창무역의 구채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대창사의 성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셋째, 대창사의 성공여부와 관련하여 백씨 집안의 경영능력과 경험을 높게 평가하였다. 백씨 집안은 다년간에 걸쳐 다방면에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상업적 수완을 축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창무역 시절부터 축적해 놓은 판매망과 단골 수요처를 그대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백씨 집안이 제출한 대창사 사업계획 정도는 충분히 이루어낼 것으로 보았다.

넷째, 실질적인 대출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담보와 경영감독이라는 안전장치를 구축하여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 의거한 것이었다. 즉 대출금 중 15만 엔의 신용어음대부는 대창직물의 보충품 구입자금으로 허용 중인 대출금을 ‘전가융통(轉嫁融通)’하는 것으로 신규 대출이라고 할 수 없고, 나머지 대출금에 대해서도 불충분하지만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았으며, 경영 전반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엄격한 감독을 실시하여 순조로운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의미였다.

대출의 대가로 실제 백씨 집안이 제공한 담보는 백씨 집안 소유의 종로 일대 부동산 대지 40평과 대창사 주식 4,000주, 그리고 대창직물 위탁매매 제품을 제외한 대창사 소유 상품 전부였다. 그리고 ‘엄격한 감독’은 직접적인 경영 개입의 수준이었다. 한성은행 행원이 직접 파견되어 상시 감독할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대창사는 매월 1회 이상 업무 상황을 한성은행에 보고해야 했고, 필요할 경우 한성은행에서 직접 회계 및 기타 경영내용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었다. 대창사 이익금은 대창무역의 구채 반환에

충당하며, 그 형식·방법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한성은행의 승인을 받고, 지시한 대로 처리해야 했다. 그리고 대창사는 이러한 내용을 7개 조항으로 정리하여 요약한다고 명시한 ‘각서(差入證)’를 한성은행에 제출하였다.⁵⁸⁾

한성은행의 자금지원으로 대창사가 설립되었다는 것은 동 은행이 그 직전 대창무역의 백화점 경영전환에 대한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거부했거나, 최소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채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는 기업에 대해 백화점으로의 확장을 위해 다시 거액의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한성은행의 관심은 대창무역 구채 청산과 대창직물과의 관계성에 있었다. 이것은 대창사의 이익금을 대창무역 구채 청산에 쓸 것과, 대창사를 대창직물 생산제품의 판매기관으로 규정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한성은행의 자금지원으로 설립된 대창사는 자본금 50만 엔이었고, 최초 12만 5천 엔이 불입되었다. 불입자본금 12만 5천 엔은 백씨 집안 소유 금융회사 애국합명회사(愛國合名會社) 명의의 토지 출자 7만 5천 엔과 대창직물의 백씨 지분 주식으로 5만 엔을 동원하여 조달했다.⁵⁹⁾ 경영진은 사장 백낙원을 비롯하여 백씨 집안 4형제가 독점하였다. 대창사도 대창무역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졌으나, 사실상 폐쇄적 가족회사의 성격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업 성격은 일제말까지 유지되었다.⁶⁰⁾

백씨 집안의 대창사 경영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은데, 대창직물 생산제품 판매소라는 한성은행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경영계획은 각종 직물류의 판매를 통해 설립 초년도 90만 엔의 매출로 시작하여 4차년도에는 160만 엔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1차년도 4만 5천 엔에서 4차년도 7만 6천 엔에 이르는 판매수익과, 3천 엔에서 2만 5천 엔에 이르는 순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

58) 漢城銀行庶務課(1932).

59) 漢城銀行庶務課(1932).

60)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3년판, 1935년판, 1937년판, 1939년판, 1940년판, 1942년판 참조.

했다. 1차년도 3천 엔의 순이익금은 최소한도로 계산한 것으로 실제는 이보다 증가할 것임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⁶¹⁾

[표 2] 대창사 경영계획(단위: 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예상매출액	本絹	100,000	100,000	100,000	100,000
	交織	400,000	500,000	550,000	600,000
	人絹	100,000	190,000	300,000	390,000
	가공면포	100,000	150,000	170,000	180,000
	粗布	90,000	130,000	150,000	200,000
	마포 및 저포	50,000	50,000	50,000	50,000
	모직물	60,000	80,000	80,000	80,000
	합계	900,000	1,200,000	1,400,000	1,600,000
예상매출이익(A)		44,900	58,300	67,500	76,000
매출경비(B)	세금	800	1,700	2,400	3,000
	仲立料	3,000	4,000	4,500	5,000
	여비	3,000	3,300	3,700	3,700
	광고료	400	400	400	400
	잡비	5,000	5,500	6,000	6,500
	인건비	15,680	16,660	16,810	16,830
	지불이자	11,000	11,000	11,000	11,000
	割引料	3,100	4,320	4,320	4,320
	합계	41,980	46,880	49,130	50,750
순이익(A-B)		2,920	11,420	18,370	25,250

자료: 漢城銀行庶務課(1932)에서 작성

- 주: 1. 매출경비 중 인건비에는 중역 수당 9,400엔이 포함됨.
 2. 지불이자 11,000엔은 차입금 평균 잔고 125,000엔에 대한 연 8.8%의 이자로 산정한 것임.
 3. 할인료는 상업어음 할인 평균 잔고 35,000엔에 대한 연 8.8%의 비율로 지불 예상한 금액임.

61) 漢城銀行庶務課(1932).

대창사 4차년도 160만 엔의 매출 목표는 1931년 대창무역의 전체 매출액이 70만 엔 수준이었음으로,⁶²⁾ 설립 후 단기간에 매출규모를 2배 이상 신장시키겠다는 의미였다. 매출액 2배 확대는 물론 대창직물 생산제품의 위탁판매에 의존한 것이었다. [표 2]의 판매 상품 중 본건직물 및 교직물류가 자회사 대창직물의 위탁판매상품으로, 매출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상품은 1차년도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고 4차년도에도 그 비중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것은 대창직물이 1920년대 후반 이후 교직물 생산을 통해 초창기 경영난을 극복하고 영업성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대창직물은 1932년 3월부터 주야 2교대 작업을 시작하여 점차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⁶³⁾

한편 대창직물 위탁판매 상품 외에는 인견직물류의 판매 신장이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은 192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수요가 확대되고 있던 인견직물에 주목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에 이미 새롭게 인견직물 생산 공장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음으로,⁶⁴⁾ 여기서 생산된 제품의 위탁판매를 염두에 둔 것이기도 했다. 이렇게 보면 대창사의 대창직물 위탁판매소의 역할은 보다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 외 면포, 마포, 모직물 등의 완성품을 구입하여 유통시키는 일반 도매업의 신장도 기대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다. 결국 백씨 집안은 본건, 인견, 교직물의 3품목에서 대창직물의 생산 증가를 전제로 대창사의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대창사가 대창직물의 위탁판매소로 정비된 것은 백씨 집안 사업의 주력이 기존 대

62) 漢城銀行庶務課(1932).

63) 漢城銀行庶務課(1932).

64) “대창직물은 직기 200대를 가지고 견직물 및 天人絹交織物을 製織하는데 인견직물의 수요 증가로 장래 益益 유망을 예상하며, 內地의 인견회사와 제휴하여 공장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目下 同社 상무가 內地에 출장하여 교섭 중이다.” 『매일신보』 1932.7.15.

창무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 영역에서 1930년대 대창직물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왔음을 의미하였다.

대창사 설립이라는 백씨 집안의 선택은 완전히 자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창사 설립 직전까지 백씨 집안은 대창무역의 백화점 전환을 추진하였다. 만약 이 시도가 성공했다면 대창사 설립은 없었을 것이고, 백씨 집안의 주력사업은 박흥식의 사례에서 보듯이 상업자본 영역에 좀 더 머물러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좌절되었다. 여기에는 백씨 집안의 돈을 쥐고 있던 한성은행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한성은행이 대창무역의 백화점 전환이 아닌 대창사 설립에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그 대가로 이 위탁판매점 대창사의 경영에 직접 간섭하고, 판매수익도 대창무역의 구채를 갚는데 쓰도록 백씨 집안의 각서를 받았다. 아울러 한성은행은 대창사에 대한 대출 단행과 동시에 대창무역과의 상업할인, 신규 대출 등 일체의 금융거래를 중지하였다.⁶⁵⁾ 이것은 결과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대창무역을 사실상 해체하고 대창사를 신설하여, 한성은행이 백씨 집안 구채정리를 위해 기대를 갖고 있던 대창직물의 위탁판매점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 것을 의미한다. 한성은행은 이것이 장기간 골머리를 앓아온 백씨 집안 악성 채권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대창사 설립으로 대창무역은 사실상 기업으로서의 생명력이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일정기간 종로상가에서 직물소매업을 하는 점포로서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동 회사의 한성은행과의 오랜 채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935년 경성 상계의 주목을 받으며 백씨 집안과 한성은행의 대창무역 구채정리가 일정하게 매듭지어지면서, 대창무역은 남아있던 소매도 폐하고 이름만 남은 휴면법인이 되었다.⁶⁶⁾

65) 漢城銀行庶務課(1932).

66) 『매일신보』 1935.5.11.

6. 맺음말

19세기부터 육의전 대시전상인의 지위에 있었던 백씨 집안은 한말 서구 자본주의 유입의 격동기에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근대자본가로 성공적인 변신을 이루어낸 거의 유일한 사례이다. 이 글은 1920년대까지 백씨 집안의 주력회사였던 대창무역의 설립과 경영에 주목하여 전통상인에서 근대 상인으로, 그리고 산업자본으로 변신해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백씨 집안이 전통상인에서 몰락하지 않고 근대 상인자본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는 출발점은 한상룡의 회고에 의한다면 이토 히로부미로 상징되는 일제 핵심권력의 후원에 있었다. 한상룡과 한성은행이라는 배경은 이토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여기에 힘입어 백씨 집안이 이른 시기에 육의전 입전 점포를 대창무역이라는 주식회사 조직으로 전환시켰고, 제1차 세계대전 전시호황 최대의 수혜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화교상인을 배제한 중국무역의 개시, 직물부 설치를 통한 견직물 제조에도 나섰다.

그러나 1920년 시작된 전후 불황은 대창무역의 이후 장기 경영난의 시작이었다. 마포가격 폭락으로 인한 선물거래 손실 등으로 1920년 한 해에만 12만 엔이 넘는 거액의 영업적자를 내었다. 이후에도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 백화점자본의 본격 진출 등으로 대창무역은 장기간 경영난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결국 1920년대 말에 이르러 대창무역은 파산하였다. 더 이상 무역회사의 모습은 아니었고, 원래 자회사로 설립된 대창직물에서 생산한 제품의 위탁판매점으로 연명하는 상황이었다.

백씨 집안은 전통의 가업이자 주력 기업이었던 대창무역의 부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특히 1930년대초 시도한 백화점 전환은 박흥식과의 교섭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결국 좌절되었다. 여기에는 대창무역의 주거래은행이자 장기채권자이기도 한 한성은행의 의도가 강력하게 작용하였다. 대창무역의 구채 변제를

최우선시한 한성은행은 대창무역의 백화점으로의 전환을 통한 부흥에 회의적이었으며, 그보다는 대창직물의 생산제품판매소 역할에 충실하기를 희망했다. 한성은행의 자금지원을 통해 1932년 설립되는 대창사는 이러한 한성은행의 의도가 철저하게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한성은행은 대창사에 대한 직접적 경영간섭을 통해 동 회사가 대창직물 생산제품판매소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한편으로 이를 통해 만들어진 수익이 대창무역의 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되도록 강제하였다. 아울러 대창무역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하였다.

대창사의 설립과 함께 대창무역은 사실상 기업으로서의 생명력을 다했다. 종로상가에서 직물소매업을 하는 점포로서 일정기간 존속하였으나, 한성은행과의 구채정리가 일정하게 매듭지어지는 1935년을 기점으로 대창무역은 휴면법인이 되었다. 대창무역 시대의 종식은 백씨 집안의 산업자본가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대창직물, 그리고 대창무역이 휴면법인화한 1935년 설립되는 태창직물을 주력 기업으로 하여 자본축적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백씨 집안의 자발적 선택만은 아니었다. 자금지원을 무기로 한 한성은행의 강력한 영향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한성은행은 대창직물 및 태창직물에 대한 막대한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백씨 집안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시켜 나갔다.⁶⁷⁾

67) 백씨 집안의 산업자본가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대창직물 및 태창직물의 설립과 경영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다룰 것이다.

참고문헌

【자 료】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매일신보』.

『조선중앙일보』.

『황성신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株式會社 韓一銀行(1915-1918), 『取締役會決議錄』 6, 한국금융사박물관.

漢城銀行庶務課(1931), 『大昌織物株式會社ニ對スル貸出金限度増額延期取扱ノ件(1931.8.28.)』, 『取締役會議案』, 한국금융사박물관.

漢城銀行庶務課(1932), 『株式會社大昌社ニ對スル貸出金取扱ニ關シ條件追加竝差入書徵求ノ件(1932.5.13.)』, 『取締役會議案』, 한국금융사박물관.

中村資良編,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각년도판, 東亞經濟時報社.

한성은행(1908-1933), 『제6기-제57기 영업(업무)보고서』.

【논 저】

고승제(1991), 『끝없는 도전』, 한국경제신문사.

_____ (1975), 『한국경영사연구』, 한국능률협회.

김동운(2001), 『박승직상점, 1882-1951년』, 혜안.

박현(2004), 「한말·일제하 한일은행의 설립과 경영」, 『동방학지』 12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배석만(2008), 「일제말 조선인자본가의 경영활동 분석-백낙승과 이종희의 군수회사 경영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제45호, 경제사학회.

오진석(2002), 「일제하 박홍식의 기업가활동과 경영이념」, 『동방학지』 11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전우용(2011), 『한국회사의 탄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정병욱(1999), 「1910년대 韓一銀行과 서울의 商人」, 『서울학연구』 12,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학연구소.

정안기(2014), 「일제의 군수동원과 조선인 자본가의 전시협력 -백낙승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6, 동북아역사재단.

조기준(1973), 『한국기업가사』, 박영사.

주익중(2008), 『대군의 척후: 일제하의 경성방직과 김성수·김연수』, 푸른역사.
한익교 정리, 김명수 옮김(2007), 『한상룡을 말한다』, 혜안.

金明洙(2010), 「近代日本の朝鮮支配と朝鮮人企業家・朝鮮財界: 韓相龍の企業活動と朝鮮実業倶楽部を中心に」, 慶應義塾大学 大学院 博士學位論文.

원고 접수일: 2016년 7월 8일

심사 완료일: 2016년 7월 20일

계재 확정일: 2016년 7월 28일

ABSTRACT

The Economic Performance of Silk Merchant
Baek Family in Korea under the Japanese Rule

— Focusing on the Foundation and Managing Process of the
Daechang Trading Corporation

Bae, Suk-man*

The present study pays attention to the founding and management of the central company of the Baek Family up to the 1920s, which is the Daechang Trading Corporation, in order to analyze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from traditional merchant to modern merchant and then to industrial capital. The reason that the Baek family succeeded in transitioning to modern merchant capital while avoiding a collapse at the level of traditional merchant was none other than the background of Han Sang-ryong and Hanseong Bank, with Ito Hirobumi as the broker. Daechang Trading, founded in 1916, was its result, and became the largest beneficiary of the wartime economic boom of the First World War.

However, the postwar recession starting in 1920 was the beginning of Daechang Trading's long-term financial difficulties. In just the year of 1920, it suffered tremendous losses of over 120 thousand yen, and by the end of the 1920s, it went bankrupt. Around 1930, the Baek family planned

* HK Research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RIKS), Korea University

a revival of Daechang Trading, but they failed time and again. The intentions of Hanseong Bank, the main bank and long-term creditor of Daechang Trading, was a factor in this failure. Hanseong Bank was skeptical to the revival of Daechang Trading, and instead hoped that it devoted itself to the role of product store for subsidiary Daechang Textile Corporation. Founded in 1932 through the funding of Hanseong Bank, Daechangsa Inc. is a result that thoroughly reflects the intentions of Hanseong Bank. With the end of the Daechang Trading era, the Baek family transitioned into industrial capitalists with Daechang Textile and Taechang Textile Corporations as their central companies. This process was not a voluntary choice by the Baek family as Hanseong Bank, armed with funding, exerted powerful influence.